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국 일자리, 10월에 1만2천 개 증가

[오일]

- Bloomberg: 대선 앞두고 경합주에서 유가 20% 하락
- Bloomberg: 미국 석유 생산량 증가, 공급 과잉 우려

[자원]

- WSJ: 기초 금속, 미국 대선 주목하는 가운데 안정세 유지

[인공지능]

- Bloomberg: 빅 테크 기업, AI 경쟁에 올해 2천억 달러 지출 예정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아이폰 반등, 애플 매출 역대 최고치 갱신
- CNBC: 보잉, 파업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합의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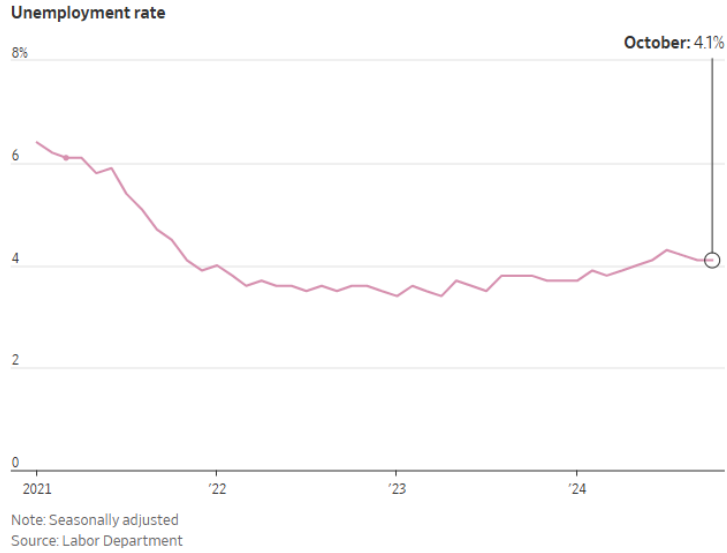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U.S. Added 12,000 Jobs in October as Storms Sidelined Workers 미국 일자리, 10월에 1만2천 개 증가

- 지난달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다. 두 차례의 허리케인과 계속되는 보잉 파업 때문이다. 오늘 금요일 미 노동부는 10월에 일자리가 1만2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9월 22만3천 개 증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실업률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대로 4.1%였다.
-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일자리 수치 조사를 위해 매월 12일이 포함된 주간에 몇 명이 급여를 받고 있는지 조사한다. 허리케인 헬렌은 9월 26일 플로리다에 상륙했으며, 밀턴은 두 주 후에 상륙했다. 즉, 9월 보고서엔 허리케인의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
- 보잉 파업은 9월 중순에 시작됐다. 3만3천 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 금요일 노동부 보고서에는 주로 파업 때문에 운송 장비 제조 분야에서 4만4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밝혔다.
- 다음 주 목요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두고 연준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요일 상무부는 GDP가 작년보다 2.8% 성장했다고 밝혔다.
- 허리케인의 피해도 회복되고 있다. 어제 목요일 노동부는 10월 초 눈에 띄게 증가했던 초기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지난주부터 올해 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WSJ 기사

[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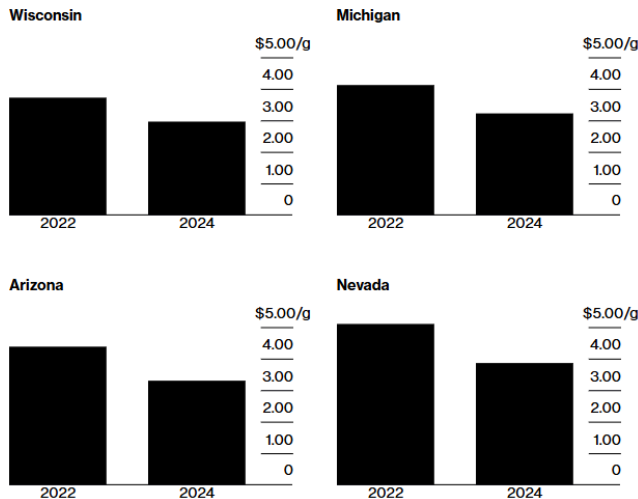
Bloomberg: Pump Prices Tumble 20% in Key Swing States Ahead of Election

대선 앞두고 경합주에서 유가 20% 하락

- 대선을 며칠 앞두고 경합주에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유가는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 지표다.
- 전미자동차협회(AAA,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의 4주 평균 데이터에 따르면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주요소 유가가 2022년 중간선거 이후 최소 20% 하락했다.
- 후보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각각 11%와 16%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17% 하락했다.

Fuel Prices Slide Since Midterm

Retail gasoline has fallen 17% nation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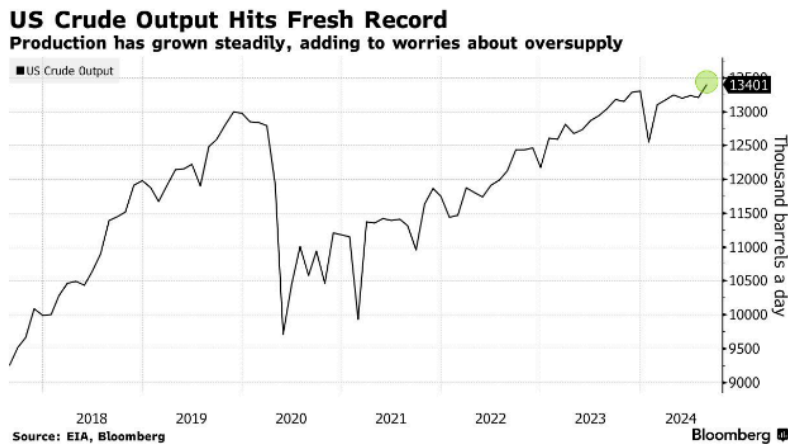
Source: AAA
Note: Prices represent four-week averages before 2022 midterm election and 2024 presidential election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Oil Production Hits Another Record, Adding to Supply Worries

미국 석유 생산량 증가, 공급 과잉 우려

- 미 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어제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8월 미국 원유 생산량은 하루 1천3백40만 배럴로 역대 월간 최고치를 달성했다. 텍사스에선 하루 580만 배럴이, 뉴멕시코에선 하루 210만 배럴이 생산되고 있다.
- 생산량이 증가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석유량이 하루 23만5천 배럴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2021년 팬데믹 봉쇄 조치로 석유 소비가 급감했던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다.
- 미국의 석유 생산량 증가는 OPEC의 12월 증산 계획과 더불어 석유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재 유가는 경제 전망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자원]

WSJ: Base Metals Broadly Stable With U.S. Election in Focus

기초 금속, 미국 대선 주목하는 가운데 안정세 유지

- 유럽 거래 초반, 기초 금속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개월 동선물은 톤당 약 9,547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알루미늄은 0.2% 상승한 톤당 2,632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트레이더들은 미국 대선이 기초 금속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BMI 분석가는 “중국 금속 수요 전망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준다. 미국 선거 결과가 글로벌 경제 정책과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금 가격은 0.5% 상승해 온스당 2,76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 자산에 대한 강한 수요

로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WSJ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Tech Giants Are Set to Spend \$200 Billion This Year Chasing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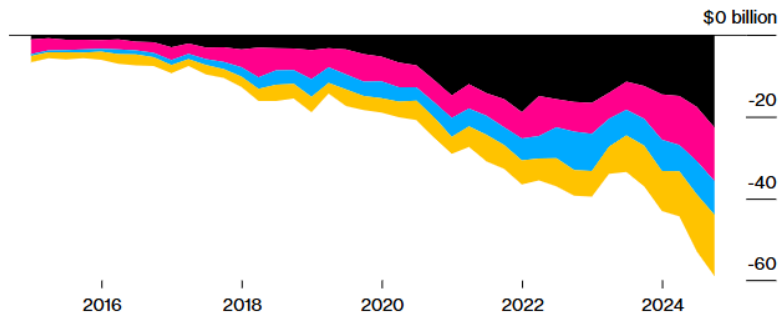
빅 테크 기업, AI 경쟁에 올해 2천억 달러 지출 예정

-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 빅 테크 기업들의 올해 자본 지출은 2천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ChatGPT 등장 이후 AI 붐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과 자원이 소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빅 테크 기업들은 고품질 칩 확보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 빅 테크 기업들은 미래 사업 수익성을 두고 월가를 설득하고 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Andy Jassy는 AI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말했다. 메타의 CEO Mark Zuckerberg도 AI 모델을 비롯한 미래 프로젝트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아마존과 메타는 각각 750억 달러와 4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 빅 테크 기업들의 재무 결과는 엇갈렸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성장에 힘입어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실망스러운 클라우드 매출 성장 전망과 막대한 지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 마이크로소프트 CEO Satya Nadella는 “이번 분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역량 부족이다. 데이터 센터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분석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부족 문제를 결국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JP 모건 분석가들은 특히 OpenAI에 대한 투자가 성공을 위한 장기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The Biggest US Internet Firms Are Investing Record Amounts

Capital expenditure among big cloud service operators hit a new high

■ Amazon ■ Alphabet ■ Meta ■ Microsoft



Source: Bloomberg, company filings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pple Sales Hit Quarterly Record as iPhone Business Rebounds
아이폰 반등, 애플 매출 역대 최고치 갱신

- 아이폰 판매량이 반등하면서 9월 분기 애플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FactSet에 따르면 애플의 4분기 총매출은 949억 달러, 순이익은 147억 달러였다.
-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의 애플 AI 출시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소비자들 몰릴 것으로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아이폰 매출은 462억 달러로 애플 전체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부진했던 상반기 매출에서 반등한 것이다.
- 애플 CFO Luca Maestri는 첫 8일 동안 아이폰 16의 판매가 아이폰 15 때보다 더 좋았다고 말했다. Counterpoint Research에 따르면 중국 아이폰 16의 첫 3주 판매량도 작년 아이폰 15 때보다 좋았다.
- 이번 주 초 알림 요약, 텍스트 재작성, 사진 정리 등 애플 AI의 첫 기능이 출시됐다. 애플은 ChatGPT와의 통합을 포함해 다른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 Maestri는 “애플 AI는 신중하게 업데이트할 것이다. 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출시할 것이다. 사용자들이 작년보다 더 빨리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애플 AI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BC: Boeing union backs sweetened contract offer that could end strike, sets vote for Monday
보잉, 파업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합의안 제시

- 보잉 회사 측이 기계공 노조 측에 새로운 임금 인상 합의안을 보냈다. 이번 합의안으로 7주간 계속된 파업을 끝낼지를 두고 다음 주 월요일에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노조 측은 시애틀 지역의 생활비가 급등함에 따라 보수 인상을 요구했었다.
- 새로운 합의안에는 4년간 38%의 임금 인상이 포함됐다. 이전 제안은 35% 인상이었다. 그리고 ‘1만2천 달러의 일회성 보너스’ 또는 ‘7천 달러의 일회성 보너스와 401(k)에 5천 달러 추가’ 중 하나를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다.
- 노조 측은 많은 성공을 거둔 만큼 파업을 계속하는 건 옳지 않다고 조합원들에게 말했다. 이번 파업으로 대부분의 보잉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었고, 오늘 금요일 발표된 미국 일자리 보고서에서 10월 미국 고용 수치가 감소했다.
- 보잉은 지난 분기 6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또한 2025년까지 계속 현금 소모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BC 기사

[보고서]

**미국 금리인하 전망 속 "트럼프 당선시 인플레이" 우려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져**

미국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이후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날 발표된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9월분과 고용 지표, 이달 5일 미 대선 전망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PCE 9월분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2.0%에 근접했다. 이는 2021년 2월(1.8%)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저이기도 하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